

금리와 은행주 그리고 중소형주

Quant/Strategy 양해정
02. 3779-0151
hjyang@ebestsec.co.kr



Chart



Implication

- 금리인상 시기에 은행주의 움직임이 대형주로의 매기 이동에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.
- 금리에 대해서 한국시장보다 먼저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은 미국시장으로 미국 금융주가 향후 시장에서 중요한 인디케이터가 될 것으로 판단.

Call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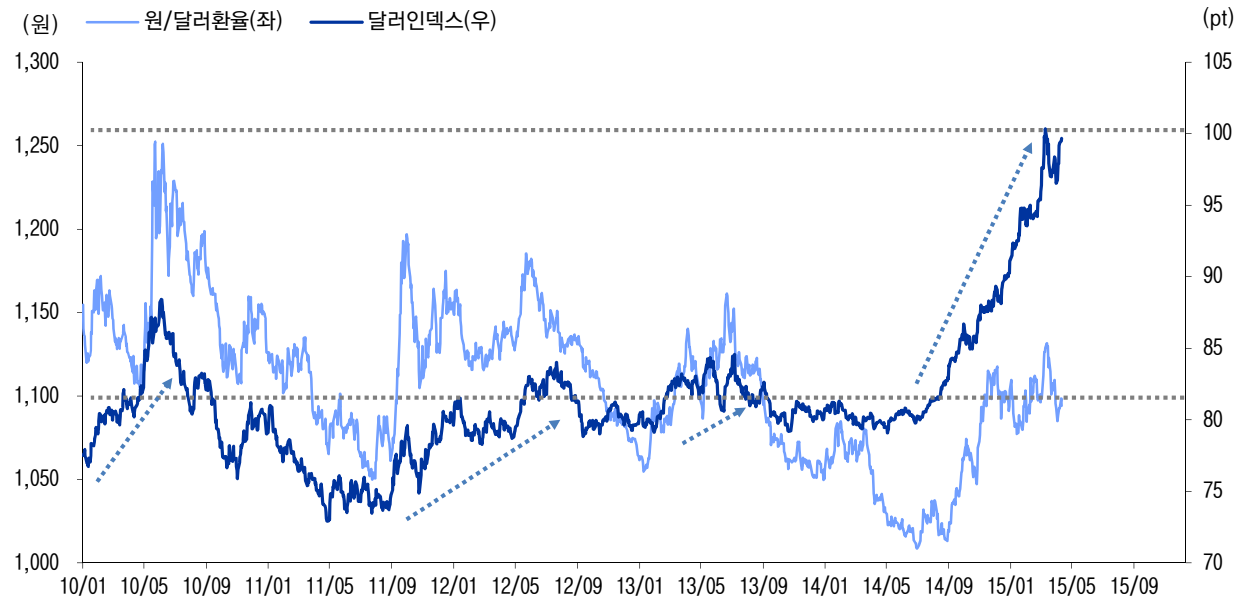
- 14일 주식시장에서 중소형주 조정이 은행주가 상승과 함께 나타남.
- 소외되었던 유통 업종이 같이 상승한 것으로 볼 때 밸류에이션 갭 메우기도 일정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임
- 기본적으로는 금리가 움직이면서 금리와 역의 상관성을 보이는 소(중)형주 조정이 나오고, 금리에 민감한 은행업종 상승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.
- 4 Fed가 기준 금리를 올리면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단상일 수 있음.

달러인덱스 100pt 터치, 원/달러 환율은?

Economist 최광혁
02. 3779-8448
Kh.choi@ebestsec.co.kr



Chart



자료: Bloomberg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Call

- 1 2015년 4월 9일 이후 달러인덱스는 99pt 진입. 장중 100pt를 터치하면서 상승추세 지속
- 2 원/달러환율 상승 예상이 높아질 수 있는 시점. 원/달러환율은 달러의 레벨이 아닌 변화율에 반응
- 3 달러인덱스가 100pt를 넘어선 시점에 원/달러 환율은 1,100원을 기록. 미국 기준금리 인상 지연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, 한국 정책 기대감 및 자산가격 상승을 고려할 때 원/달러 환율의 강한 상승 모멘텀은 제한적
- 4 4월 중 달러인덱스 96pt~102pt, 원/달러환율 1,080원~1,130원 전망

EIA(미에너지정보청), 5월 미 셰일오일 생산 감소 전망

Commodity Analyst **황병진**
02. 3779-8828
vincent.h@ebestsec.co.kr



Chart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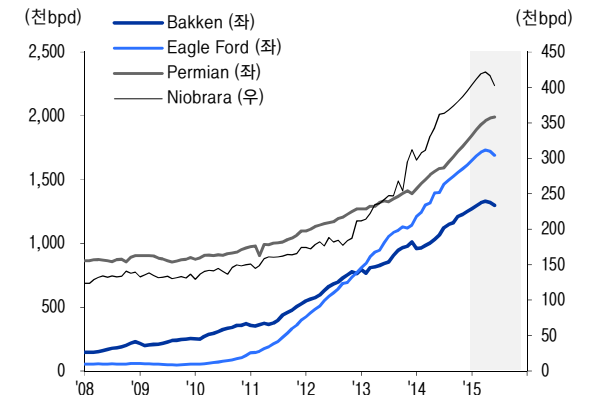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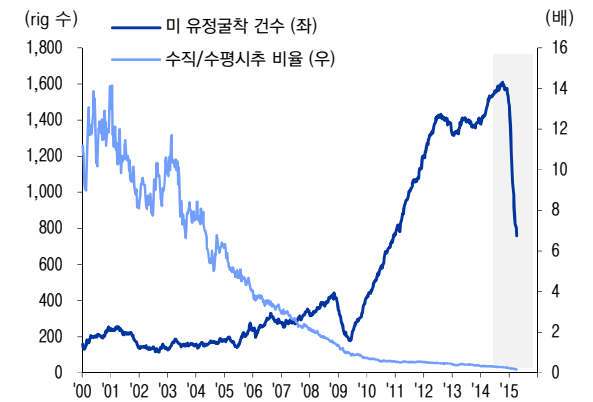
주: 7대 셰일유정지역 산유량(전통유정 생산도 포함)은 '미 셰일오일 생산' 과 상이. 자료: EIA, Bloomberg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Call

- 1 미 에너지정보청(EIA), 5월 미 셰일오일 생산량 일일 498만 배럴 전망 (4월 대비 4.5만배럴 감소 전망)
- 2 7대 셰일유정지역 중 Bakken, Eagle Ford 및 Niobrara 지역 산유량은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 전망. 반면, Permian 지역 산유량은 여전히 증가세 전망 유지. (단, 7대 셰일유정 합산 산유량은 감소 전망)
- 3 수직시추 대비 수평시추(셰일유정) 비중이 높은 미 원유생산하에서 '투자의 감소는 곧 미래 산유량 증가세 둔화/감소' 를 의미. 또한, 미 셰일오일 생산량 감소 전망은 여전히 재고 부담하에 있는 국제유가의 \$40 바닥 확신을 굳건히 하는 지지요인.

참고지표

- 유정굴착 감소세(유정 투자 감소) 지속 따른 주요 셰일 유정지역 산유량 감소.
- 4월과 5월은 EIA 지역별 산유량 전망치(하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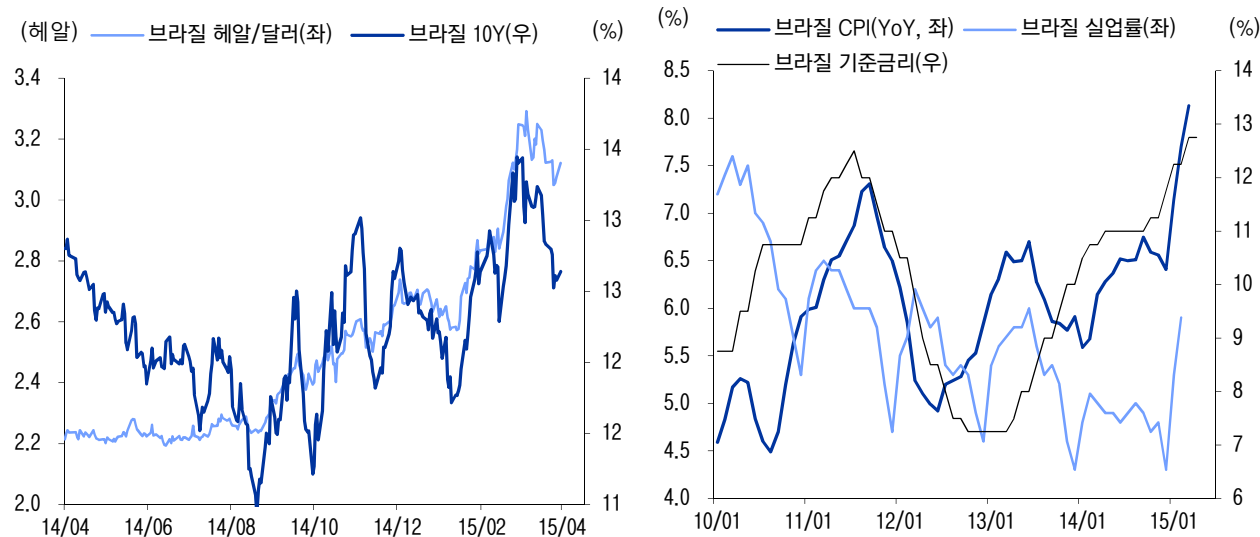


브라질 기준금리 추가 인상 불가피할 듯

Fixed Income 권규백
02. 3779-8885
spri@ebestsec.co.kr



Chart



자료: Bondweb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Call

- 3월 말 이후 브라질 금융시장 안정되고 있는 상황. ECB의 양적완화, 미국 기준금리 인상 지연에 대한 시장의 기대 등이 반영된 결과. 이밖에 단기 낙 폭 과대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매입 수요도 가격 반등의 한 원인
- 브라질 금리, 환율가치 반등에 성공했지만 브라질 펀더멘탈은 여전히 부진. 지난 8일 공개된 3월 소비자물가는 8.13%로 정부 목표치인 6.5%를 크게 상회. 실업률은 201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중.
- 높은 물가상승률 때문에 4월 말 예정된 브라질 중앙은행 정례회의에서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. 페트로브라스 문제도 상존하기 때문에 브라질 환율, 금리 가치 추가 하락가능성 매우 높음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

(작성자: 양해정, 최광혁, 황병진, 권규백)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.

-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